



필요한 만큼 산다
고물가에
소비흐름 변화
L1



Life

혈액 속 신호로
성숙 심근세포 제작
독성평가 새 길
L2



깊은 녹음 속 조형이 남긴 획... 자연과 예술 엮은 감성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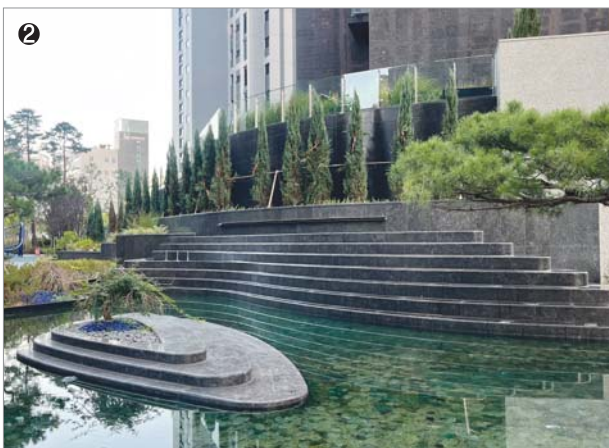
아파트의 미학(美學)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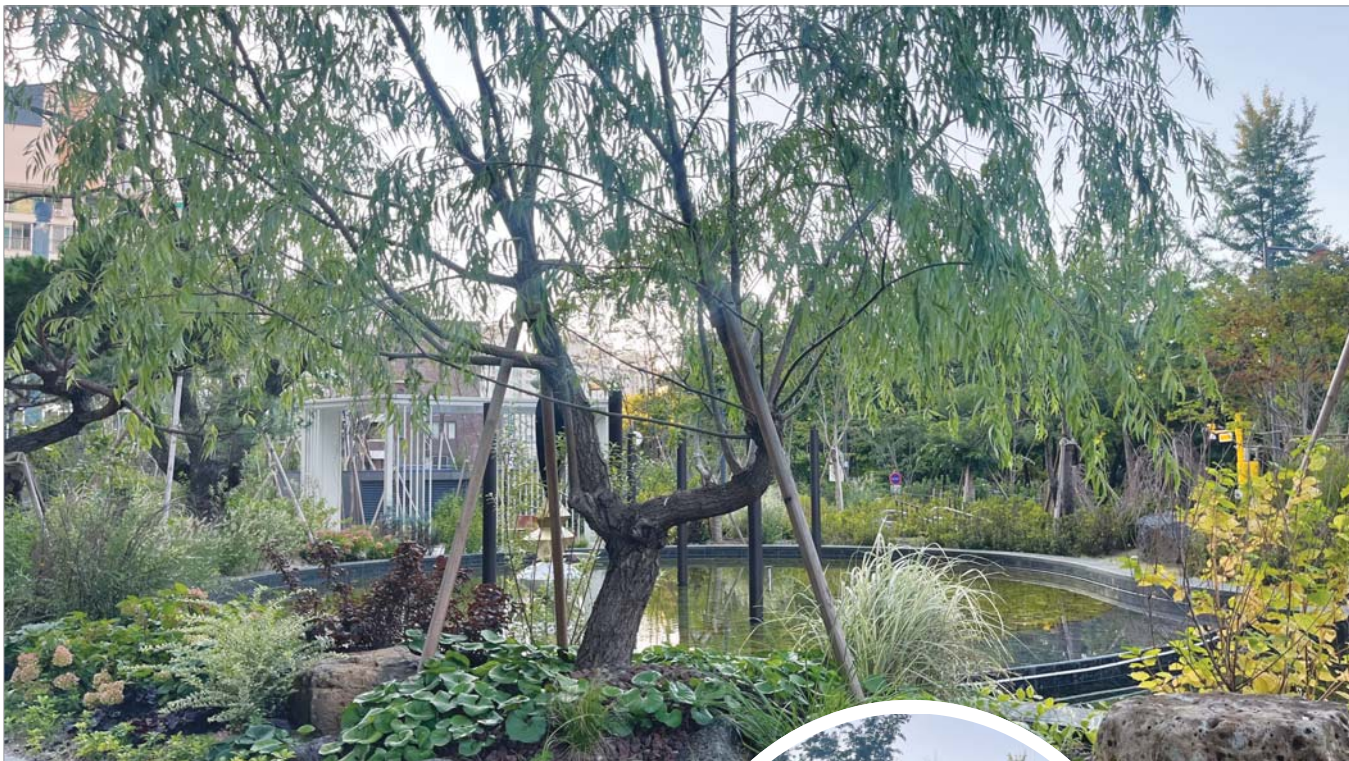
천호뉴타운 재개발 535가구 단지
도보 거리 천호공원·한강 ‘공세권’

깊은 숲속 연상시키는 수목 배치해
겹겹이 쌓인 자유로운 녹음 속 연못
곡선·수직의 조형물로 균형 맞춰

주차장 램프구간 활용한 계단형 쉼터
에메랄드빛 유리석 깔린 수경시설도



① 천호공원과 연결된 단지 내부 산책로.
② 단지 내 작은 연못과 계단식 수경시설. 반복되는 단차와 곡선형 구조가 입체감을 만든다.
③ 단지 내 휴식공간. 흰색 세로 프레임을 반복해 개방감을 살렸다.
/성채리 기자



단지 중심부에 조성된 연못을 수목이 뽀뽀하게 감싸고 있다. 연못 내부에는 수직 기둥과 금빛·흰색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서울 강동구는 강남·잠실과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한적한 주거 분위기를 갖췄다. 지하철과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한 천호동도 큰길을 조금만 벗어나면 한결 여유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나와 북쪽이든 로데오거리 상권을 따라 걸으면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지원’이 보인다.

DL이앤씨가 시공한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지원’은 천호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조성됐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8개 동, 전용면적 44~115㎡ 총 535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44~84㎡ 26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됐다.

단지는 천호뉴타운의 마지막 재개발 단지로, 천호동 중심 생활권에 자리한다. 교통은 천호역을 중심으로 갖춰져 있다. 도보 거리에 있는 천호역은 서울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다. 광화문 등 서울 중심지로 이동하거나 잠실·강남권에 접근하기도 쉽다. 특히 역으로 향하는 길에 상권이 발달해 있어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하기 좋다. 천호역 주변에는 현대백화점과 아울렛을 비롯해 대형마트, 다이소, 영화관, 병원 등 생활인프라가 모여 있다.

또 다른 입지 장점은 공원을 가까이 둔 ‘공세권’이라는 점이다. 단지 바로 옆에 천호공원이 있는데, 단지 안에 있는 건지 헛갈릴 정도로 딱 붙어 있다. 천호공원에서는 산책로나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광나루 한강공원도 단지에서 약 600m 거리다. 걸어서 10분이면 한강에 닿는 한강 생활권이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체감할 만한

부분은 통학 동선이다. 단지에서 강동초등학교 방향으로 갈 때는 천호공원 안쪽 길을 이용할 수 있다. 위험한 차도를 피해 안전한 등하교가 가능하다.

천호동 자체는 학군 경쟁력이 약간 편이지만 고덕·방이권 대형 학원 서를 이용하는 학부모도 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구성됐다. 피트니스와 GX룸,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비롯해 키즈라운지와 독서공간, 라운지 카페·작은도서관, 런드리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됐다.

단지 안쪽에서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큰 연못과 이를 둘러싼 녹음이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키가 다른 나무와 풀이 뽀뽀하게 자라 있다. 깊은 숲속에 연못이 보일 듯 말 듯 숨겨진 모습이다.

연못 안에는 길쭉한 기둥 여러 개가 수직으로 솟아 있다. 중심에는 검은색과 흰색, 금빛 요소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조형물이 있다. 박성하 작가의 ‘프레스티지 베일(Prestige Vale)’이란 작품이다. 수면 위 빛과 그림자의 움직임을 통해 물과 조형물이 함께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환상을 구현했다. 시간의 흐름을 활용해 자연과 예술이 결합된 감각적인 풍경을 완성했다.

단지의 전반적인 조경은 ‘정갈하게 다듬은 정원’보다는 ‘거친 야생의 숲’에 가깝다. 대신 연못의 매끈한 곡선과 수직으로 세운 조형물, 수로의 선을 또렷하게 잡아 자연과 인공적인 구조물 사이 균형을 맞췄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지점은 지하주차장 램프 구간을 활용한 공간이다. 기능시설로만 남을 수 있는 구조물을 계단과 쉼터로 유틸리티 있게 풀어냈다. 완만하게 이어지는 계단 사이에는 목재 데크가 있어 입주민이 앉아 쉴 수 있다. 계단 아래에는 작은 연못이 있다. 연못을 감싸는 벽면 역시 계단처럼 층층이 반복된다. 등고선처럼 비슷한 모양의 도형이 점점 커지며 반복되는 형태다.

수경시설 바닥에는 에메랄드빛 유리석이 촘촘하게 깔려 있다. 수면 아래 녹색빛이 겹치면서 작은 휴양지 같은 분위기를 낸다. 물이 빠진 계절에도 유리석 자체가 물빛을 연상시켜 계절에 따른 공백을 줄여준다. 반짝이는 바닥과 주변의 소나무가 어우러지며 정갈하면서도 청량한 인상을 만든다.

이 단지의 놀이터는 특히 조형성이 뚜렷하다. 파란색 놀이시설은 굽은 곡선이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고 바닥은 파도처럼 디자인했다. 철제 프레임이 길게 뻗다가 끝부분에서 휘어지는 역동적인 시설도 있다. 단지 곳곳의 쉼터도 가느다란 선을 나열하는 디자인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냈다.

수풀과 나무는 거칠고 자유롭게 배치했지만, 연못과 계단, 놀이터 등 시설물에서 직선과 곡선을 반복해 통일감을 준 점이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지원의 조경 특징이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14세’ 강연서, 박정윤 꺾고 양궁 컴파운드 개인전 銅
▲김하성, WC 2차전서 1볼넷 1득점...애틀랜타는 연장 끝 패배
/사진 뉴스스

▲‘또 선발 제외’ 41세 호날두, 포르투갈 축구대표팀서 전격 이탈
▲창덕궁 후원서 느끼는 ‘책의 향기’...7~18일 선한재 특별 개방

▲BTS RM 특별전·이건희 컬렉션 순회전에 ‘뭇즈’ 뜬다
▲국종박·美 클리블랜드미술관, ‘지옥의 시왕’ 선보인다